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마당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벌인 2주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끝났다.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오면서 그 열기도 뜨거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밤 광화문에서 10명의 직군 종사자와 함께 유세를 하며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6일 밤 동대문 남평화상가를 찾아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간담회를 가지며 모든 공식선거운동을 마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포텍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후보자 대신 마이크 잡은 청년들... 차·뭇 '젊은 한표' 호소

되돌아 본 서울시장 선거유세

두 후보의 선거 운동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흥대에 위치한 편의점을 찾아 청년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첫 선거 운동의 열정도 잠시,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가 잠 못 자고 일하는 청년에게 장관 시절 '무인 스마트수퍼 사업'을 추진한 적 있다며 "무인 편의점이 확대되면 가게 매출도 늘고 직원도 덜 피곤해 손님에게 더 친절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공무원 준비 중 돈을 벌기 위해 야간에 일하는 청년에게 한, 후보의 '맥락 없는' 말에 비판이 일었다.

박 후보 측은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발암 물질에 해당한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반면, 오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교통공사 군자 차량기지를 찾아 전동차 안을 소독하며 차분하게 공식 선거운동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의점 찾아 야간알바로 첫 일정 알바 청년에 '무인수퍼' 발언 곤혹

청년 교통비 할인, 데이터바우처 등 1일 1서울선언 대부분 '청년공약'

을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곳은 시민들의 발 지하철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쉬면서 소독하고 청소하고 정비하는 곳"이라며 "아침에 다시 일터에 나가는 시민들을 모시기 위해 나가는, 지하철 입장에서 고단한 몸을 녹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곳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도 유세 중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25일 강서구에 걸린 오세훈 후보 현수막에 문제가 됐다. 해당 현수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울리는 복합문화시설 강서구 어울림플라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내용

이었다.

무상급식 쟁점으로 시장직까지 포기했던 오 후보이기 때문에 다시 '차별' 논란이 불거질까 현수막을 바로 내렸지만 박 후보 측은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오세훈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역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수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여타 논란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 후보에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 모습이었다. 박 후보 유세현장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해 지지를 보였다.

20·30 끌어안기도 두 후보 선거운동의 주요 과제였다. 과거에는 젊은 층이 투표를 잘 안했지만, 사전투표제가 정착되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며 정치 효능감이 높아져 젊은 층의 투표도 보결선거에 중요해진 것. 두 후보 모두 청년들을 유세차 위로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오 후보에게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

교통공 전동차 소독하며 선거운동 "새로운 하루 준비 '상징적 의미'"

주거안정 지원 등 '청년정책' 약속 청년에 5톤트럭 넘기고 1톤 차 사용

20·30대 지지율이 밀린 것으로 나타난 박영선 후보는 매일 하나씩 발표하는 서울 선언의 대부분을 청년 공약으로 채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청년 교통비 40% 할인 ▲월 5기가 청년 데이터 바우처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 등 파격적 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지난 2일 박 후보의 청량리 유세에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올라와 "자신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보호시설이라 불리는 곳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라며 오 후보를 향해 "가난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청년취업 사관학교 설립 ▲라이프 취·창업 특강 실시 ▲청년 자산블링 컨설팅 제공 ▲주거안정 지원 ▲주거·창업 지원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정책으로 청년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오세훈 후보 유세에는 연일 문재인 정부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는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세훈 캠프 측은 2030 유세차 연설이 화제가 되자 지원자가 몰려 후보가 타던 5톤 유세차를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오 후보는 1톤짜리 소형 유세차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지원의 나선 태영호 의원의 막춤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 후보는 본 투표 하루 전인 6일 필수 노동자들이 새벽에 출근을 하기 위해 타는 6411번 버스를 타며 정의당 지지까지 흡수 하려고 했고 오 후보는 4일 여권이 오 후보 시장 시절 만들어 놓은 빗더미라며 맹공을 퍼부은 세빛섬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도 사장님 이다

200여개 흥삼 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탈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햏터그룹★

(주)햏터라이프 T. 070-7204-4515

연말까지 긴급할당관세 0%... 생활물가 잡는다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소비자물가 1.5% 상승... 선제관리할 것"

정부가 2분기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키로 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대책본부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 독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

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을 추진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선진국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